

## 개흉 환자에서 흉막 유착을 위한 Talc의 임상적 이용

### Talc Pleurodesis in Patients Undergoing Thoracotomy

원광의대 흉부외과학교실

최종범 · 이삼윤 · 김형곤

Talc는 늑막을 자극하여 섬유화와 늑막유착을 일으키는 효과적인 약제이기는하나, 사용후 발열, 심한 동통, 섬유흉, 폐기능 저하, 증피증, talc 색전증에 의한 반신불수 등의 부작용과 합병증이 발생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생산되고 있는 talc는 그 순수성이 불분명하여, 그 사용이 원할하지 못했었다. 저자들은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talc제를 흉막유착이 꼭 필요한 환자들에서 선택적으로 사용하고 talc의 사용의 임상적 의의를 알고자 하였다. 1991년 3월 부터 1995년 8월까지 개흉과 흉막 유착이 필요한 27례의 환자에서 talc pleurodesis를 시행하였다. 환자의 평균연령은 50.6세 (범위 18~77세)였고, talc는 속발성 자연기흉환자 18례, 원발성 자연기흉 환자 2례, 외상성기흉 4례, 폐 악성종양 1례, 농흉 2례에서 사용되었다. 특히 고령의 자연 기흉환자에서 지속적인 공기누출과 심한 폐기종이 있는 경우, 전신마취가 가능하면 치료방법으로써 개흉절개로 수술하였고, 3례에서 비데오 흉강경을 이용한 소절개로 병변에 접근하였다. 주병변인 폐기포는 봉합기로 폐기포와 폐실질의 경계를 차단하고 말단부위를 절제하지 않고 3~0 Vicryl로 연속봉합하였고, 주 병변외의 폐기포나 공기누출부위는 3~0 Vicryl이나 5~0 Prolene으로 봉합하였다. 벽측늑막 (parietal pleura)에 기계적 찰과상을 만들고 Talc분말은 폐측늑막에 고루 발랐다.

Talc를 사용한 환자에서 talc에 의한 사망이나 감염은 없었다. 20례의 자연기흉 환자중 13례 (65%)가 재발성 기흉이었고, 5례 (25%)는 1차 기흉 치료시 바이브라마이신으로 흉막유착을 시행했던 환자들이다. 11례에서 수술 후 일시적인 발열이 있었으며, 4례 (14.8%)에서 수술 후 90~122units/L의 간 효소치 (alanine aminotransferase)로 일시적인 상승을 보였다. 21례 (77.8%)에서 수술 다음날부터 공기 누출이 거의 소실되었고, 6례 (22.2%)에서 2내지 7일간, 1례 (3.7%)에서는 10일간의 공기 누출을 보였다. 드레인 튜브의 발거는 수술 후 평균 5.2일째 (범위 2~18일)였고, 수술 후 입원 기일은 평균 11.6일이었다. 수술 후 평균 27개월의 추적으로 기흉의 재발이나 폐의 허탈은 없었다. 수술 후 동통은 talc보다 개흉자체가 주원인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지속적인 공기 누출과 폐쇄성 폐질환을 가진 환자에서 개흉시 선택적으로 talc를 흉막에 도포함으로써 효과적이고 합병증이 적은 흉막유착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